ISSN 2586-1816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e-ISSN 2586-4440
Vol. 8. No. 4, pp. 225-230, 2018 DOI : https://doi.org/10.22156/CS4SMB.2018.8.4.225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출환경의 문제점과 시사점에 관한 연구

이준호[1], 김태환[2*]
[1]한양대학교 경영컨설팅학과, [2]안양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lications of Export Environment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n Korea

Joon-Ho Lee[1], Tae-Hwan Kim[2*]
[1]Management Consulting, Han-Yang University
[2]Department of Global Business Administration, An-Yang University

요 약 정부의 지속적인 수출 지원정책 추진에 따른 다양한 지원으로 중소기업 수출의 양적확대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대기업 중심의 수출성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수출기업이 내수기업보다 고용창출과 성장성면에서 우수하다는 조사결과를 감안하면 내수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전환하게 되면 고용창출과 수출 증가뿐만 아니라 해당 중소기업의 발전도 가능하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수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지속적인 수출기업으로 유지하기 위한 지원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 환경과 현황분석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과 지속적인 수출 기업 유지를 위한 전략 수립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주제어 : 국내 수출기업 수출현황, 지원정책, 수출촉진, 수출 중소기업, 거래관행

Abstract Despite a quantitative increase in the export of small and medium sized businesses due to various policies supporting export that have been continually promoted by the government, the majority of export growth has been centered around conglomerates. As research has shown that export companies are superior in terms of job creation and growth compared to domestic companies, the conversion of domestic companies to export companies will not only result in job creation and increase in exports, but it will also enable the improvement of such companies. It is therefore important to support the export of small and medium sized businesses and maintain their status as export companies with supporting polic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esent state of the export environment of Korean and foreign small and medium sized businesses in order to elicit ideas for establishing strategies for the promotion of export and maintaining the status as an export company.

Key Words : The Present State of Export of Korean Export Companies, Support Policies, Promotion of Export, Small and Medium Sized Export Companies, Trading Practice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그동안 우리 정부는 수출저변 확대와 중소기업의 수출촉진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는 있으나, 중소기업의

*This work i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export suspension factors of exporting SMEs and the study on the sustainable export growth plan published by Small & medium Business Corporation in 2014.
*Corresponding author : Tae-Hwan Kim(kthwancau@naver.com)
Received July 30, 2018 Revised August 6, 2018
Accepted August 20, 2018 Published August 31, 2018

수출 비중은 전체 수출의 17.2%에 불과할 정도로 대기업 중심의 수출성장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다.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은 중견기업을 구분한 2009년에 21.1%, 2013년에 17.2%, 2017년에는 0%로 둔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수출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정부 정책상의 지속적인 추진 의지와 실현 등으로 수출의 양적 성장은 이루어졌으나, 수출 중소기업의 영세성 등의 심화로 질적 성장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수출 중소기업의 수는 2008년 7만 5천여 개에서 2012년 8만 5천여 개로 증가는 하였으나, 그 비중은 전체 중소기업(약 3.3백만 개)의 2.6%에 불과한 실정이다. 규모 역시 2012년 기준 100만 불 이하 수출 중소기업이 전체 수출 중소기업의 83.2%에 달할 정도로 수출 영세성이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수출 중소기업이 내수 중소기업보다 고용 창출과 성장성 면에서 월등히 우수하다는 조사결과[1]를 감안한다면 내수 중소기업을 수출 중소기업으로 전환·성장시키게 되면 고용 창출과 수출 증가뿐만 아니라 해당 수출 중소기업의 발전도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게다가 현 정부에서의 중소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은 선거 이전부터 공공연하게 주장해온 정책이기도 한데, 이전 정부에서의 중소기업 관련 주무기관을 산업통상자원부와 산하의 중소기업청을,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즉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분리시킨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만큼 현 정부에서의 확고한 의지로 볼 수 있다.

지난 20년 동안 9만여 개에 가까운 벤처확인기업이 배출돼 대기업보다 높은 고용증가율을 실현해 왔고, 매출 1,000억 원이 넘는 벤처기업도 470여개가 배출돼 이제 “벤처기업”은 명실공히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제 성장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는 신성장동력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2].

따라서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첫 단계인 수출을 통한 해외진출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지속적인 수출기업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지원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1.2 연구의 목적

이에 본 논문에서는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 환경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하여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과 지속적인 수출 기업 유지를 위한 전략 수립의 가이드라인과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2.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출현황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은 2001년 43.0%를 차지한 이후 2013년 34.0%(중견기업 포함)까지 하락하고 있어 정체 또는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한 2009년에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은 2009년 21.1%, 2013년 17.2%로 감소하고 있다. 반면 대기업의 수출비중은 2000년부터 2013년 평균 65.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3년 65.8%를 차지하고 있어 수출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양적 성장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수출액은 2000년 635억 불에서 2013년 1,028억 불로 61.9% 성장하기는 하였으나, 수출 비중은 오히려 감소 추세에 있어 중소기업의 수출 질적 향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수출 중소기업은 2008년 7만 5천여 개에서 2012년 8만 6천여 개로 연평균 3.4% 증가하였으나 전체 중소기업의 2.7%에 불과한 수치이며, 수출 규모별로도 100만 불 이하를 수출하는 기업이 전체 수출 중소기업의 83.2%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그 영세성은 심화되고 있다.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규모를 살펴보면 1백만 불 이하로 수출하는 규모는 2012년 전체 수출 중소기업의 83.2%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10만 불 미만 수출하는 기업이 전체의 절반이 넘고 있다.

이러한 수출 중소기업의 규모와 수출액의 영세성이 지속됨에 따라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은 약화되고 있으며, 대기업 중심의 수출 성장세가 지속되는 수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3.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문제점

3.1 대기업 종속성

전체 중소기업 중의 절반 이상이 대기업과의 하도급 관계에 처해 있는 실정이며, 업체당 평균 모기업 수는 평균 10개 내외로 대기업 종속성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매출액 대비 대기업 납품액 비율은 44.5%로 높은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수출은 대기업과의 동반 진출 또는 간접 수출 형태를 통하여 이루

어지고 있으며, 전문 수출업체에 납품을 통한 간접 수출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3.2 높은 중간재 수출 비중

이러한 대기업 종속성은 수출 품목의 종류에서도 확연히 나타나고 있는데, 중소기업은 다양한 부품(중간재)을 대기업에 공급하고, 대기업은 완제품을 최종 생산하여 수출하고 있다. 원자재의 수출 비중은 2009년 312억 불에서 2012년 387억 불로 24% 증가하였으며, 자본재 수출 비중 역시 동기간 320억 불에서 460억 불로 43.8% 증가하였다. 동기간 소비재의 수출 비중은 146억 불에서 178억 불로 30.9% 증가하였으나, 수출 품목의 종류가 원자재와 자본재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었다.

3.3 한·중 기술격차의 감소

이미 주지하다시피 중국의 산업 기술 수준은 무서울 정도의 속도로 우리나라를 추월하고 있는데,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제품은 2013년 현재 우리나라가 65개 품목이며, 중국은 1,538개로 세계 수출시장 품목의 30.4%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2013년 현재 중국과의 기술격차는 조선이 1.7년, 디스플레이가 1.5년, 바이오 0.7년, IT 융합기술 1.0년, 반도체 1.3년, 섬유가 1.3년으로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에서 한-중간 수출 경합도가 날로 증가하여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석유화학, 철강, 기계, IT, 자동차, 조선, 정밀 기기 등 8대 수출 품목의 한-중-일 수출 경합도에서 우리나라는 중국 시장을 제외한 일본, 미국, EU 시장에서 중국과 일본 대비 경쟁상 열위 상태에 처해 있다.

이러한 한-중-일 3국간 격화되고 있는 수출 경쟁에서 대기업보다 시장 경쟁에 취약한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 환경은 더욱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

4. 시사점

4.1 중소기업 수출비중 확대를 위한 질적 성장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출은 정부의 수출 저변 확대 정책과 의지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수출 중소기업의 수는 이러한 수출 성장에 비해 저조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전체 중소기업의 약 2.7%만이 수출 중소기업이고,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 규모 역시 100만 불 미만인 비중이 83.2%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출기업이 내수 기업에 비해 고용증가율은 3.8개, 1인당 매출액은 2.3배, 1인당 매출액 증가율은 1.6배, 1인당 임금상승률은 1.6배 높다는 결과[1]를 비추어 볼 때 고용 창출과 수출 2조 불 달성을 위해 수출 중소기업의 확대를 통한 질적 성장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국내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생존 능력과 가치창출 능력이 뛰어난 '알짜배기(Small Giants)기업'을 집중적으로 키워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 상황이다. 특히 대기업에 대한 종속성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중소기업 모델이 필요하며, 수출실적이나 매출액 등의 양적 규모보다 질적인 측면에서 경쟁력을 가진 기업을 발굴해 육성해야 한다[3].

4.2 수출품목의 다변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출 품목은 섬유, 기계, 전자 등의 특정 업종에 집중되어 있어, 해당 산업의 글로벌 위험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상황이다.

수출 중소기업이 선도하고 있는 품목 중 치열하게 시장 경쟁을 하고 있는 철강, 전자 등의 업종에서는 가격 경쟁뿐만 아니라 기술 경쟁을 전개할 수 있는 R&D 역량 강화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016년 현재 우리나라 10대 수출 품목은 반도체,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부품, 합성수지, 철강 및 강판, 전자응용기기로 이러한 수출 10대 품목에 대한 중소기업의 수출을 전환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수출 10대 품목은 이미 세계적으로 한국 브랜드 이미지를 확보한 품목인 만큼 10대 수출 품목의 경우에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국내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과의 동반 진출 전략을 통해 중소기업 수출 품목수의 한계를 극복해야 할 시점이다.

4.3 대기업 종속성 심화현상 개선

전체 중소기업 중 절반 이상이 대기업과의 하도급 관계에 처해 있으며, 업체당 평균 모기업 수는 평균 10개 내외로 대기업에 대한 종속 관계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매출액 대비 대기업 납품액 비율 역시 44.5%로 매

우 높은 실정이다.

이러한 대기업 종속성은 가치사슬 상 완제품이 아닌 중간재를 생산·유통하는 중소기업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중소기업 제품의 홍보 및 마케팅의 제약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대기업 종속성 심화 현상을 개선함과 동시에 대기업과의 해외 동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중간재 제품의 홍보 및 마케팅 수단을 실질적으로 제고시킬 수 있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4.4 해외진출형태 다양화 추세에 맞는 지원정책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가 2014년 실시한 대기업 협력사의 해외진출 지원 현황에 대한 서베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협력사의 글로벌화에 성공하기 위한 정부 출연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 기관의 역할 제고를 위해 세 가지의 정책적 대안을 살펴보면, 첫째,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는 중소기업 CEO의 의지와 그 기업의 역량을 평가하여 선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둘째, 협력 중소기업 또는 독립 중소기업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벤처중소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정부유관기관과 한국무역투자공사(Kotra) 등의 지원기관 간에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수 있는 통합지원체제를 구축하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협력사 해외진출이 활성화 되려면 대기업의 실질적인 세제 감면, 협력사에 대한 금융 지원, 동반성장지수에 대한 가점 부여 등의 정부 차원에서의 인센티브 정책도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4].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은 수출 중심에서 해외직접투자(FDI), 현지 법인 설립 등의 형태로 다양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기에 수출을 통한 양적 성장 확대뿐만 아니라 해외 직접 진출을 통한 질적 성장의 확대도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여러 정부 부처나 유관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원사업의 중복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지원사업의 중복성은 부처 간 연계협력 지원의 애로사항을 야기시키고 있으며, 지원 정책 간 시너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승효과를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된다[5]. 제각각 기관별로 추진을 하다 보니 수요자는 그 지원 사업을 인지하지 못하고, 인지한다고 해도 어디로 해야 할지 혹은 절차의 복잡성으로 참여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발생하여 포기할 수도 있다[5,6].

이런 제도 중복의 이유는 근본적으로 무역관련 공공기관이 개발한 정책 중 성공한 정책을 민간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벤치마킹하여 실시한다는데 그 원인이 있다. 특히, 지원제도와 관련한 자금이 부족하고 무역과 관련한 전문 인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고유한 지원제도를 개발하기가 어려울뿐더러 한정된 예산으로 가장 확실한 효과를 나타내도록 하는 것이 정책의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이다[5,7].

무역과 관련한 전문 인력의 양성과 공급은 대학 정규교육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고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최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산학협력이 확대되어 무역인력의 질적 수준 향상이 이루어진 것은 긍정적인 현상이므로 산학협력은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8].

또한, 그 동안의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국제화 관련 정책은 국제화의 기본적인 개념이 외향성 국제화로만 인식되어져 왔던 편협한 정책에서 외향성과 내향성 국제화의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인식하는 폭 넓은 정책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9].

4.5 정부의 대·중소기업의 거래관행 개선 의지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자금, 인력, 정부정책 등의 생산에 필요한 투입요소에 대한 경쟁적 시장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채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 결과 제품과 서비스로 구성된 완제품시장에서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이 열세에 처하게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다. 즉,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지는 가장 큰 이유는 생산과정이 아니라 그 이전 과정인 생산요소 시장에서의 불균형 때문이다[10].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에서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한 동반성장, 상생협력 등의 용어가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정책들은 주로 대기업 위주로 독과점적인 산업조직 구조를 가진 산업들이라 할 수 있어 이들 산업 중심으로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11].

대·중소기업의 거래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로 성과공유제를 들 수가 있다.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활동 중 대표적인 성과공유 활동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사전 계약단계에서 기술이나 생산성을 높이는 혁신활동 포함 여부, 중소기업에게 기술과 자금

을 투입하여 성과공유제를 운영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상호 협력관계를 더욱 유인할 필요가 있다[12].

이는 대·중소기업간의 단기적인 협력 형태로는 성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상호간의 목표를 공유하고 장기간 파트너와의 신뢰 형성을 바탕으로 관계 지속성을 강화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12].

5. 결 론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 현황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수출비중 둔화 현상, 두 번째는 수출 중소기업의 영세성 심화, 세 번째는 특정국가 편중현상 심화, 마지막 네 번째는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특정 품목의 편중현상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국내 수출 중소기업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4가지 형태로 문제점과 시사점을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절대적인 수출 중소기업의 비중이 작다는 것이다. 전체 중소기업의 2.7% 정도가 수출을 경험한 기업으로 볼 수 있으며, 100만 불 미만의 비중이 80%를 넘어서는 만큼 양적 확대와 질적 성장의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는 수출품목의 편중 현상으로 섬유, 기계, 전자 등 제조 중심의 산업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해외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서비스, 도소매 등 제조분야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수출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셋째는 대기업에 종속되어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이들 종속기업의 매출액 대비 대기업 납품액 비율은 44.5%로 해외기업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대기업 종속성 심화 현상의 개선과 동시에 대기업과의 해외 동반 진출을 위한 지원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중간재 제품의 홍보 및 마케팅 수단을 제고시킬 수 있는 지원 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더 나아가 대·중소기업간의 상생협력을 통하여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기업 생태계를 구축하여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발전시키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유형은 현재 수출위주의 구조에서 해외직접투자, 현지법인 설립 등의 다양한 형태로 수출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1]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2014).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Daily Creation of Export and Domestic Companies.*

[2] Y. J. Cha. (2017). News1(Online). http://news1.kr/articles/?3051228

[3] Korean Association of Small Business Studies. (2015). *Strategic debate on small business venture.*

[4] C. O. Rhee. (2017). Large Company's Win-Win Export Assistance Program for Suppliers and Their Globalization. *The Korean Association of Small Business Studies, 39(1),* 46.

[5] J. H. Lee & T. H. Kim. (2018). A Study on the Problems and Efficiency of SME's Export System in Korea. *KOREA INTERNATIONAL COMMERCE REVIEW, 33(1),* 404.

[6] S. J. Lee & H. C. Kim. (2017). The Efficient Management Plan of Export Support Program for Small and Medium Exporting Companies. *KOREA INTERNATIONAL COMMERCE REVIEW, 32(1),* 267.

[7] H. J. Kang. (2013). A Study on the Problems and Utilization of Export Support Programs for SME's-Focused on Daegu and Gyeongbuk Area-. *KOREA INTERNATIONAL COMMERCE REVIEW, 28(4),* 375.

[8] H. H. Lee. (2017). A Study on Activation of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for Pioneering Overseas Market.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19(1),* 321.

[9] Z. K. Kim. (2017). Strategies for Korea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Participation in Global Value Chains and Policy Implications. *The Korean Economic Review, 9(4),* 90.

[10] D. S. Cho. (2013). Capitalism 5.0 with CSV is the Answer. *Dong-A Business Review, 122,* 65.

[11] J. H. Bai, G. H. Kim & E. J. Min. (2016). Input-Output Analysis on the Relation between Large and Small-Medium Enterprises in Korea. *The Korean Association of Small Business Studies, 38(1),* 45.

[12] G. J. Jo & I. O. Jeon. (2017). A Study on the Effect of Win-Win Cooperative Activities of Large and SMEs on

Core Competencies and Business Performance. *Korea Research Academy of Distribution and Management Review, 20(2),* 13.

이 준 호(Lee, Joon Ho) [정회원]

- 2002년 2월 : 남서울대학교 국제통상학 학사
- 2008년 2월 : 경희대학교 경영컨설팅학 석사
- 2014년 2월 : 한양대학교 경영컨설팅학 박사
- 2016년 3월 ~ 현재 :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컨설팅학과 겸임교수
- 관심분야 : 경영컨설팅, 중소기업 역량진단, 산업혁신
- E-Mail : jhlee_star@naver.com

김 태 환(Kim, Tae Hwan) [종신회원]

- 2002년 2월 : 강남대학교 경제통상학부 학사
- 2004년 8월 : 중앙대학교 무역학과 석사
- 2009년 2월 : 중앙대학교 무역학과 박사
- 2016년 3월 ~ 현재 : 안양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중소기업 업무 프로세스, 결제시스템, 블록체인
- E-Mail : kthwancau@naver.com